

“정책 알리고, 사람 모으고”… 국회 ‘광주의 날’ 호평

국회·정당·지방정부 지방분권 모델
정당과 정책협약·팀광주의원 위촉
통합돌봄·군공항 이전·AI 등 공감
기후변화 대응 ‘재제조산업’ 제시

전국 최초로 열린 ‘국회, 광주의 날’에
대한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.

국회를 직접 방문해 광주의 대표정책은
알리고, 사람은 모으고, 국회·정당과는 파
트너로 하나가 됐다는 점에서 새로운 지
방분권의 시작이라는 평가다.

4일 광주시에 따르면 제22대 국회 개원
식에 맞춰 지난 2~3일 이틀간 서울 국회
에서 ‘국회, 광주의 날’을 열고, 더불어민주당·조국혁신당과 정책협약식, 국민의
힘 정책전달식, 광주시 대표 혁신정책 토
론회, ‘팀광주 국회의원’ 위촉식, 국회의
장 캐스퍼 전기차(EV) 탑승식 등 다채로
운 행사를 진행했다.

전국 지자체 최초로 열린 ‘국회, 광주의

날’은 ‘광주가 온다. 대한민국이 달라진
다’를 주제로 2025년 지방자치시대 30년
을 맞아 한층 업그레이드된 지방분권시대
를 열기 위한 지방정부-국회-정당 간 새
로운 협력 시스템을 마련, ‘새로운 지방분
권 모델’을 만들고자 기획했다.

입법권·예산권을 가진 국회에 인공지능
(AI), 미래차 등 광주시 주요현안과 대표
혁신정책 등을 확실히 각인시키며 광주발
전의 힘을 모았다. 특히 지방정부-국회-
정당 간 협력 시스템을 마련했다는 점에
서 유례없는 성장동력을 얻었다는 평가
다.

국회의원회관 로비에 마련된 전시·홍보
관인 ‘국회 광주관’에는 국회에서 ‘지자체
의 날’이 처음 열린 만큼 국회의원들은 물
론 전국 지자체들의 이목을 끌었다. 광주
시는 대표정책을 비롯해 고향사랑기부
제, 캐스퍼 전기차(EV), 광주김치축제,
광주비엔날레 등을 적극 알렸다.

먼저 첫째날인 2일에는 정당과 광주발

전 정책공조에 나섰다. 더불어민주당·조
국혁신당과 정책협약, 국민의힘과 정책전
달식 등을 통해 지방정부-국회-정당의 새
로운 협력 시스템을 마련했다. 정당 행사
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
이재명 대표,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, 국민
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.

정당은 ‘정책 실증의 장’으로 광주가 필
요하고, 광주는 국회의 입법권·예산권의
도움이 절실한 만큼 돌봄·복지, 기후대응
·산업, 주거·도시, 지방분권 분야 등에서
시너지를 내는 정책파트너로 함께 뛰겠다
는 의지를 담았다.

국회의 전방위 협력을 위해 광주의 든
든한 원군이 돼줄 ‘팀광주 국회의원’도 결
성됐다. ‘팀광주 국회의원’은 광주 지역구
국회의원이 배치되지 않은 국방위원회와
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로, 제22대
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성일종 위원장과
안규백·김민석 의원, 환경노동위원회 소
속 이학영 국회 부의장과 김주영·김소희

의원 등 총 6명이다.

‘국회, 광주의 날’ 둘째날인 3일에도 국
회 협력 강화가 이어졌다.

광주형일자리 성공을 위한 캐스퍼 전기
차(EV) 탑승식이 열렸다. 강기정 시장,
우원식 국회의장, 양부남 국회의원, 한상
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이 함께했다.

강 시장이 직접 운전대를 잡고 우 국회
의장 등이 함께 탑승해 국회 경내를 순회
했다. 광주시와 국회는 앞서 지난달 국회
에서 ‘캐스퍼EV 구매협약’을 맺고, 업무
용 공용차량으로 캐스퍼 전기차를 도입하
기로 했다.

국회 1000송이를 들고 국립5·18민주묘
지를 찾아 오월영령을 기린 개혁신당 국
회의원들에게 감사편지를 전하며 ‘오월
동행’을 강화했다. 강 시장은 개혁신당 천
하람·이준석·이주영 국회의원과 환담하
고, 의원실 입구에 감사편지를 함께 부착
하며 5·18 정신계승에 함께하는데 뜻을
모았다.

국회의원·전문가·관계부처가 공동으로
광주시의 대표 혁신정책과 주요 현안에
대해 릴레이 토론회를 연 것도 큰 주목을
받았다. △누구나 돌봄시대, 지역돌봄 통
합 지원 △자동차 부품 재제조 순환경제
기술포럼 △영호남지역 군공항 이전의 한
계와 대책 △광주 인공지능(AI) 실증벨
리 확산사업(AI 2단계)을 통한 미래 발
전전략 등의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됐다.
토론회에서 제안된 해법과 방안들은 법제
화 등을 통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
으로 기대된다.

강 시장은 “국회, 정당 등에서 많이 도
와준 덕분에 전국 최초로 ‘국회, 광주의
날’을 개최해 성공리에 마쳤다”며 “중앙에
잘 알려지지 않은 지방정부의 주요 현안
과 대표정책을 알리고 협력 시스템을 마
련할 수 있었다. 앞으로도 광주시는 광주
의 대표 혁신정책이 대한민국 표준정책이
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밝혔다.
노병하 기자 byeongha.no@jnilbo.com

전남도, 서울서 추석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연다

6~8일 은평구서 40개 부스 운영
남도 김치 담그기·홍보관 등 풍성

전남도가 추석을 맞아 6일부터 3일간
서울 은평구 불광천에서 전남 농특산물을
홍보 판매하는 직거래 한마당 행사를 개
최한다.

전남도-은평구 농특산물 직거래 한마
당은 광주전남시도민회와 협력해 서울시
자치구와는 최초로 공동 추진한다. 행사
는 판매부스 29개, 남도장터, 남도김치 등
홍보부스 4개, 체험부스 4개로 총 40개
부스 규모로 운영된다.

이번 직거래 한마당은 참여 기관별로
역할을 분담했다. 전남도는 직거래 장터
부스 설치, 행사 참여 업체 모집 등 행사
전반을 책임지고, 은평구는 구청 누리집
과 맘카페, 구청 소식지, 카카오톡 등을
통한 홍보활동을 펼친다. 광주전남시도민
회는 전남 농특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5만
원 이상 구매한 향우에게 2만원을 현장에
서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한
다.

이번 직거래 한마당은 다양한 혜택과
이벤트로 풍성하게 구성됐다. 판매부스에
서는 전남의 대표 농특산물인 전남쌀, 배
·밤·무화과 등 과일, 김·미역·다시마·젓갈
·소금, 김치 등 다양한 제품을 최대 30%

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.

또한 5만원 이상 구매 고객 100여 명에
게 김치를 직접 버무려 가져가는 남도 김
치 담그기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돼 전남
의 맛과 멋을 직접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
공한다.

직거래 한마당이 개막하는 6일 영암 출
신의 김미경 은평구청장, 장흥 출신의 김
양희 서대문구의회 의장, 강운성 광주전
남시도민회장, 전남도의장영근 중앙협력
본부장과 박호 농식품유통과장 등이 장터
를 둘러보며 전남의 다양한 농수산물을
구매하고 시민과 장보기를 진행할 계획이
다.

전남도는 앞으로도 수도권에서 직거래
장터를 지속 추진해 전남 우수 농수산물
을 알리고 도시민에게 저렴하게 판매해
도농 상생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.

특히 오는 10월14~16일에는 서울광장
에서 22개 시군이 참여하는 2024 전남도
직거래장터 큰잔치도 개최할 예정이다.

박호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“이번
직거래 행사를 통해 전남의 우수 농특산
물을 널리 알리고 농가 소득증대와 도시
민 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”
며 “앞으로도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
만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”이라고 말했
다.

오지현 기자

광주시, 추석선물 과대포장·분리배출 표시 점검

광주시는 추석을 앞두고 포장 폐기물
발생 억제 및 재활용가능자원의 올바른
분리배출을 유도하기 위해 5일 대규모 점
포 5개소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및 분리배
출 표시 적정 여부를 점검한다.

4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광주
시와 5개 자치구, 한국환경공단이 합동으
로 점검반을 구성해 백화점, 대형마트 등
대규모 점포 5개소에서 진행한다.

대규모 점포에서 판매되고 있는 포장규
칙 적용대상 제품과 재활용 의무대상 제
품·포장재 중 제과, 주류, 화장품, 잡화,
종합제품 등 명절 선물세트류를 집중 점
검할 예정이다. 또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
기준 준수 여부와 분리배출표시 적정표

기, 무단표기 여부도 점검할 방침이다.

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은 한국환경
공단,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, ㈜친
환경포장기술시험연구원, 한국환경산업
기술원 등 전문기관에 포장검사 명령을 내
리고,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300만원 이하
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분리배출표시를 하
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도 300만원 이
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정미경 자원순환과장은 “쓰레기 감량과
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적절한 포장과 올
바른 분리배출 표기가 중요하다”며 “친환
경 소비문화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많은
관심 부탁드린다”고 당부했다.

노병하 기자



제9대 의회 후반기 정책네트워크 위원 위촉식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과 의원, 학계·시민단체 등 각 분야에서 추천된
30명의 정책네트워크 위원들이 4일 광주시의회 5층 예결위의실에서
‘제9대 광주시의회 후반기 정책네트워크 위원 위촉식’을 갖고 힘찬 출발을 다짐하고 있다. 위원들은 2026년 6월까지 의회운영, 행
정자치, 환경복지, 산업건설, 교육문화 등 5개 분과에서 주요 정책 의제 개발과 연구·자문활동을 하게 된다.
광주시의회 제공

전남도, 지·산·학·연 ‘라이즈 시범사업’ 추진

대학-지역 동반성장 프로젝트
대학 없는 시·군도 권역단위 참여

전남도가 2025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
원체계(RISE·라이즈) 전면 시행에 앞서
지·산·학·연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2024년
전남 라이즈 시범사업을 추진한다.

4일 전남도에 따르면 ‘대학-지역 동반
성장 프로젝트’를 시범사업으로 정하고
지난 6월 시군·연구혁신기관이 참여한 가
운데 설명회를 개최, 설명회에서 나온 의
견을 반영해 시범사업 계획서를 최종 확
정했다.

이번 시범사업은 동부권·서부권·중북
부권, 3개 권역으로 나눠 대학이 없는 시
군도 권역 단위로 참여토록 했다. 대학이

주체가 돼 주민-시군-대학-기업 등이 지
역 현안 과제를 발굴하고 리빙랩(현장 적
용 및 실증) 기반의 지역사회 문제 해결
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.

전남 라이즈 시범사업(대학-지역 동반
성장 프로젝트)을 위해 지난 7월10일부
터 8월9일까지 한 달간 공고했다. 협의체
간 사전 회의를 통해 발굴한 시군별 현안
과제를 기반으로 공동 과제를 선정해 3개
컨소시엄이 사업을 신청했다.

컨소시엄별 공동 과제로는 △동부권은
순천대학교를 주관으로 ‘오픈형 리빙랩’
플랫폼을 목표로 지속 가능한 전남 동부
권 혁신 생태계 구축 △중북부권은 동신
대학교 주관으로 ‘자기돌봄 웰에이징’을
목표로 고령화에 따른 노령 인구의 자기

돌봄 실현 △서부권은 목포대학교 주관으
로 ‘이주배경 주민들의 역량강화’ 목표로
공유·협업을 통한 이주 배경 주민들의 지
역사회 적응 및 네트워크 형성 등이다.

사업계획서 평가는 서면·대면 평가로
진행됐으며 대면 평가에서는 대학교수,
라이즈 자문 위원 등 고등교육 관련 전문
성을 갖춘 평가위원이 사업계획서에 대해
평가와 함께 자문을 실시했다.

각 대학에서는 평가 의견을 반영해 사
업계획서를 수정하고, 전남도에서 사업
확정 후 이달 초 본격적으로 시범사업을
추진할 계획이다. 또한 시범사업을 통해
발굴한 시군 현안 과제는 내년 라이즈 사
업 프로젝트에서 이어갈 수 있다.

오지현 기자

전남도-일본 고치현, 임업 기술·정보 교류 강화

日 방문단, 전남서 협력 방안 모색

일본 고치현 임업진흥·환경부관계자들
이 전남을 방문, 전남도산림연구원과 완
도수목원 등을 둘러 임업 관련 기술과 정
보를 교류하고,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.

4일 전남도에 따르면 고치현 방문단은

다케자키 마코토 임업진흥부 부부장을 포
함한 5명으로 구성됐다. 이들은 지난 1일
부터 이날까지 나주지역 문화 시찰을 시
작으로 전남도산림연구원을 방문해 연구
원들과 간담회 후 민간 정원을 시찰했다.

이어 목포로 이동해 편백스토리과 공생
원을 들른 후 전남도와 임업 분야 교류 확

대 방안을 논의하고, 완도수목원도 둘러
봤다.

고치현은 인구 약 69만명, 면적
7103.91㎢로 일본의 주요 임업 지역 중
한 곳이다. 삼나무와 같은 임산물 생산이
활발하며, 특히 산지율이 89%에 달해 임
업이 주요 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다.

전남도와 고치현은 2016년 자매결연을
한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이어오
고 있다.
오지현 기자